

# “화폭에 담아낸 자연의 감흥...희로애락 느껴보시길”

## 〈3〉 강남구 작가



보기만 해도 화사한 느낌의 꽃과 나무가 눈길을 잡아끈다. 작품 소재인 매화, 해바라기, 소나무 등은 생김새도 그리하지만 의미 또한 상서롭다.

강남구 작가의 그림은 공간의 깊이를 살려 몽환적 느낌을 자아낸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톡톡 튀는 색깔, 풍성한 자연의 모습은 작가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진의 아웃포커스와 같이 전경을 강조하고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한 그의 작품은 익숙한 대상을 생경하면서도 신비롭게 보이게 한다. 색에 따라 봄날의 기분 좋은 나들이 또는 청량감 가득한 여름, 어느 틈간 저녁 무렵을 상상하게 하는 등 표현적인 기법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자연 속 대상물에 수많은 사연을 한겹씩 쌓아 올리며 감동과 위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남구 작가를 지난 4일 동구 예술의거리 작업실에서 만났다.

최근 '매화' 연작을 작업 중인 그는 꽃이 주는 희로애락을 작품 속에 담아내는 데 몰두하고 있다.

“매화를 보면 흐드러지게 핀 꽃에선 향기와 부드러움이, 거친 나무 표피에서는 세월의 풍파와 연륜이 느껴집니다. 꽃망울을 피워내기까지 견뎌왔을 인고의 시간들도 떠올리게 되죠.”

자연, 그중에서도 사람 손을 타지 않고 야생에서 자란 꽃을 좋아한다는 작가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근각지 이외에도 산꼭대기에 자리잡은 매화나무며 절벽에 뿌리내린 소나무 등을 찾아다니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다. 꽃이 피기 전 앙상한 가지만을 마주하기도 하고, 봄 무렵 불그스름한 꽃망울을 만나기도 한다. 한 장소를



동구 예술의거리 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강남구 작가

/김충식 기자

### 세월의 풍파 겪은 매화·소나무 등 생명력 가득한 소재 때료 화사한 색채 속 몽환적 분위기 어우러진 자연 모습 담아내

몇 번이고 찾으며 시기별, 낮과 밤에 따라 달라지는 미묘한 변화를 포착한다.

“오랜 시간 모진 풍파를 견뎌낸 자연물에선 아름다운 물론 웅장한 모를 애잔한 감정도 느껴집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은 것 같아요. 지난한 세월이 투영된 것들에선 큰 감동이 느껴집니다. 특히 매화는 죽어있는 듯 매말라 있는 가지에서 어느 순간 하나씩 꽃봉오리가 피

어오르는데요. 여백을 두고 한송이 한송이 피어오르는 꽃잎은 고고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캔버스에 만개한 꽃들은 마치 실물을 보는 것 같이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평면이지만 공간감을 높여 마치 3D 화면처럼 톡톡 튀어오르는 듯한 꽃망울을 표현해 냈다. 공기감을 사용하는 채색 도구인 '에어브러쉬'를 사용한 작품들이다.

“전경을 강조했다고 해서 앞의 대상물만 중시하는 건 아닙니다. 배경을 몽개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했다기 보다는 그림의 조화를 이루는 요소로 생각하면 돼요. 거리를 두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착시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데요. 이제 막 봉오리를 피워낸 꽃과 풍경을 사실적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의 시간을 바탕으로 작품세계를 일궈오고 있는 작가는 앞으로도 생명력을 지닌 자연물을 통해 대중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예정이다.

“매화 그리고 소나무 등 우리 삶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소재를 통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고 싶어요. 자연의 힘을 담은 것들의 이야기를 캔버스에



'공간-생명력'



'해바라기'



'소나무'



'공간-생명력'

담아내고자 합니다. 굳건한 모습으로 지친 삶 속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자연을 그려내는 데 열중할 예정입니다.”

/최명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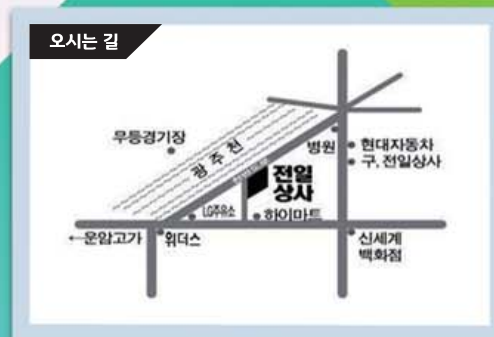


'공간-생명력'

##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